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이용자 서평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User-contributed Reviews for the Next Generation Library Catalogs

윤 정 옥(Cheong-Ok Yoon)*

목 차

- | | |
|---------------------|--------------------|
| 1. 서 론 | 3.2 이용자 서평 |
|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3 이용자 태그 |
| 1.2 연구의 방법과 내용 | 3.4 이용자 독서 리스트 |
| 2. 연구의 배경 | 4. 외부정보원의 이용자 서평 |
| 2.1 일반적 배경 | 4.1 이용자 서평 현황과 증가율 |
| 2.2 선행 연구 | 4.2 이용자 서평의 사례 |
| 3. WorldCat의 이용자 참여 | 5. 맺음말 |
| 3.1 소장 도서관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차세대 도서관 목록에서 이용자 서평 기능의 이용 현황 및 서지레코드에서 연결될 수 있는 외부 정보원의 이용자 서평의 영향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2012년 2월 16일부터 4월 4일 사이에 2010년에 출간된 열권의 책을 대상으로 WorldCat에서 소장도서관, 이용자 서평, 태그 및 독서 리스트의 현황 및 변동 추이, 그리고 서지레코드에 연결된 Amazon.com과 GoodReads.com의 이용자 서평 현황을 살펴보았다. WorldCat에서 아직 이용자 참여 기능의 활용도는 매우 낮았으며, 이용자 서평보다는 태그나 독서 리스트를 통한 참여가 더 많았다. 같은 책들에 대한 아마존과 굿리즈의 이용자 서평 참여도는 매우 높았고, 아마존에서 한 권의 책과 관련된 이용자 서평 사례 분석은 이용자 참여 기능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아직은 초기 단계인 도서관 목록에 대한 이용자 참여 기능의 확산 및 안정화 추이의 지속적 관찰, 그리고 이 기능이 이용자의 자료 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심층적,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user-contributed reviews for the Next Generation Library Catalogs, and the potential impact of user reviews available from the external sources, including Amazon.com and GoodReads.com. During the period of February 16th through April 4th, 2012, the number of holding libraries and user-contributed reviews, tags and reading lists of ten selected books were examined from the WorldCat. Also the user-contributed reviews for the same books available from Amazon.com and GoodReads.com were examined, and a case of reviews for one book was analyzed. The result shows that only a few users participated in the WorldCat, and user-contributed reviews were rarely used, when compared with tags or reading lists. Several hundred to thousand user-contributed reviews for the same books were available from Amazon.com and GoodReads.com directly linked with bibliographic records. A case of one book from Amazon.com reveals the possibility of distorting the function of user-contribu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function of user-contribution, it is expected that its growth rate should be carefully observed and its potential impact on users should be thoroughly and systematically analyzed in the near future.

키워드: 차세대 도서관 목록, WorldCat, 이용자 참여, 이용자 서평, 아마존, 굿리즈닷컴

Next Generation Library Catalog, WorldCat, User Contribution, User-contributed Reviews, Amazon.com, GoodReads.com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교수(jade@cju.ac.kr)

논문접수일자: 2012년 4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2년 4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5월 8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2): 115-132, 2012. [http://dx.doi.org/10.4275/KSLJIS.2012.46.2.115]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른바 “차세대 도서관 목록(Next Generation Catalog)” 혹은 “발견 인터페이스(discovery interface)”(Breeding 2007a; 2010)라고 불리는 도서관 목록의 주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이용자 참여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목록의 이용자 참여 기능은 Web 2.0 혹은 Library 2.0 개념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되기 시작된 것으로서, 기술, 요약, 리뷰, 비평, 주석, 등급과 순위, 태그 혹은 폭소노미 등을 포함하고 있다(Yang and Hofmann 2011). 이러한 이용자 참여 기능을 통해 목록의 서지레코드라는 사서의 전문 영역이 일부 개방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이용자들이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연구자들 가운데 일찍부터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개념을 주목해온 심경은 이미 있는 서평에 의견을 추가하거나 자신의 서평을 다는 것과 같은 이용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심경 2008, 27). 이지연과 민지연(2008)은 국내 학술정보서비스 이용자 97명을 대상으로 웹 2.0 기술에 대한 인지도 및 요구사항을 조사한 연구에서 이용자들은 태그나 리뷰 등 이용자가 작성하는 콘텐츠를 개인적 자료 관리 차원에서는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나, 작성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이용자 참

여 기능 가운데 특히 이용자 서평에 주목하였다. 원래 서평은 단어나 점수로 단편적 의견이 표현되는 태그나 평점과는 달리 대부분 문장으로 표현된 작성자의 주관적 가치판단이 나타나게 된다. 더욱이 서평은 주제 분야의 전문지식과 문장력은 물론 문헌비평자로서의 확고한 의식과 서평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되기도 한다(김상호 1994). 따라서 도서관 목록에 비전문가인 이용자들이 과연 얼마나 서평을 기고할 것인지, 기고된 이용자 서평들이 전술한 기본적인 요건을 얼마나 갖추고 있을 것인지, 만약에 이용자 서평들이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일부 연구자들(구중익, 박승진 2007)이 주장한 바와 같이 “발견성(findability)”이나 지식공유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 등 아직은 많은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차세대 도서관 목록은 확장된 콘텐츠(enhanced contents)로서 외부의 전문 서평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작성하여 기고한 서평 정보원에 대한 링크도 제공한다. 목록의 서지레코드로부터 직접 아마존(Amazon.com)이나 반스앤노블(Barnes&Noble.com)과 같은 외부 서점의 온라인 웹사이트로 링크될 수 있으므로 책의 상품정보와 연결된 이용자 서평을 볼 수 있다. 또한 굿리즈(GoodReads.com)와 같은 이용자 서평 사이트로 곧바로 링크될 수 있으므로 목록 이용자들이 이 사이트에 일반 이용자들이 올려놓은 서평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차세대 도서관 목록은 서지레코드에 목록 이용자가 서평을 추가할 수도 있고, 동시에 다양한 외부 정보원에서 제공되는 이용자 서평까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차세대 도서관 목

록에서 이용자 서평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이용되고 있으며, 서지레코드에서 연결될 수 있는 외부 정보원의 이용자 서평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1.2 연구의 방법과 내용

이 연구는 2012년 2월 6일부터 4월 6일 사이 서지레코드의 계량 및 사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이용자 참여 기능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2월 16일과 4월 4일 두 차례 아마존의 'Best Books of 2010'으로 선정된 책들 중 상위 열 권을 대상으로 전 세계 주요 도서관 종합목록이라 할 수 있는 OCLC의 WorldCat 내 도서관 소장 현황, 이용자 서평과 태그, 독서 리스트의 분포 현황 및 기간 내 변동 추이를 살펴보았다.

둘째, 같은 시점에 같은 책들에 대하여 서지레코드에서 연결되는 외부 정보원인 아마존과 굿리즈의 서평 건수 현황 및 변동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이용자 태그와 독서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용자 기고 서평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외부 정보원이 제공하는 이용자 서평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국내에서 화제가 되었던 2011년 신간도서 *The Uncharted Path*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2. 연구의 배경

2.1 일반적 배경

이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WorldCat은 1967년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출범한 대학 도서관 기반 서지유틸리티인 OCLC의 온라인 종합목록으로서 1971년 구축되었다. 사십여 년이 흐른 지금 WorldCat은 국가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을 아우르는 전 세계 도서관 종합목록으로 자리잡고 있다. WorldCat은 2011년 11월 현재 전 세계 170여 국가 72,000여 개 도서관 소장 자료 250,021,271건의 서지레코드와 소장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매 10초마다 한 건씩 새로운 서지레코드가 추가될 정도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OCLC 2011).

WorldCat은 OCLC가 2007년부터 보급한 WorldCat Local이라는 차세대 도서관 목록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WorldCat 회원 도서관만이 아닌 전 세계의 이용자들이 누구든 웹 상에서 로그인 하여 태그, 서평, 독서 리스트 등을 추가할 수 있게 한다. WorldCat의 서지레코드에서는 "Buy It" 기능을 통해 아마존을 포함한 외부 서점 사이트로, "Reviews" 기능을 통해 굿리즈와 같은 외부 서평 사이트로도 직접 링크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많은 온라인 목록의 이용자들이 요구했던 것(OCLC 2009)으로 도서관에서 직접 외부 정보원에 대한 접촉 및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진다.

2.2 선행 연구

도서관 목록에서 이용자가 기고한 서평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논의되지 않았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도서관 목록에 이용자 서평 등 참여 기능이 도입된 것은 2000년대 중반 차세대 도서관 목록 혹은 발견 인터페이스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이며 불과 육칠년 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최근 일반적인 정보기술과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그 정도 기간이 짧지 않다고도 할 수 있으나, 사서의 고유한 전문영역이던 목록에 이용자들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 “혁명적 단계이자 새로운 개념”(Yang and Hofmann 2010, 702)이라고 한 것처럼, 아직은 이러한 참여의 확산 및 그에 따른 영향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목록의 이용자 참여 기능을 비교적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실 등(2009)은 웹 2.0으로 대표되는 “웹 기반 인터넷 정보기술이 도서관 시스템의 중요기술이 되면서 도서관의 전통 업무 영역에 경계가 사라지고” 있으며, “소셜 태깅이나 태그 클라우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서의 고유 업무였던 목록에 이용자 참여가 권장”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노동조와 민숙희는 2011년 우리나라 179개 4년제 대학도서관 웹사이트를 조사하여 “도서관 2.0” 기술이 적용된 열여섯 개 기능 도입 현황을 검토하고, 가장 많이 도입된 기능은 이용자 서평 기능으로 모두 113개 대학도서관(63.1%)이 제공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다음으로 많이 제공된 RSS 기능(52개 도서관, 29.1%), 태그, 태그 클라우드 기능(47개 도서관, 26.3%)과 비

교할 때 이용자 서평 기능은 두 배 이상 많이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도서관이 도입한 이러한 기능을 이용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는 다루지 않았다.

구중억과 곽승진(2007)은 차세대 OPAC에서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태그, 서평, 코멘트, 평점 등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잘 찾아낼 수 있는 발견성을 높이고 다른 이용자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에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차세대 도서관 목록 개념이 도입된 북미주의 대학도서관들은 오히려 이용자 참여 기능을 그렇게 많이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Yang과 Hofmann(2011)이 미국과 캐나다의 260개 대학도서관의 OPAC 273종을 조사한 결과는 단 30개 도서관(11%)이 태그 기능을 허용하였고, 18개 도서관(7%)이 서평 기능을, 11개 도서관이 등급/순위(4%) 기능을 각각 제공하였을 뿐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이용자 참여의 제한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은 목록자들이 서지 데이터 품질과 이용자가 기여한 내용의 적합성에 관하여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Yang과 Hofmann(2010)은 다른 연구에서 Blacklight, VuFind 등 오픈 소스 및 AquaBrowser, Primo 등 상용 목록 발견도구(discovery tools) 18가지를 12가지 기능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이들이 이른바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기능을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검토하였다. 이들은 일반 이용자들이 점점 더 다른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 발견된 자료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하는지 찾고, 그들의 평가라고 생각하는 것을 증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검토 결과는 현재 여

덱 가지 발견도구만이 실제로 이용자 참여 기능을 허용하였고, 그 가운데 BiblioCommons는 가장 많이 태그, 주석, 요약, 인용, 공지, 등급 등 여덟 가지 기능을 제공하였고, LibraryFind는 태그, 서평, 등급 등 세 가지, Primo, Scriblio, Sopac, VuFind, WorldCat Local은 태그를 포함하여 두 개씩의 기능을 제공하였으며, Encore는 태그 한 가지 기능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아직은 목록에 도입된 이용자 참여 기능이 이용자에게 어떤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윤정옥(2012)은 WorldCat에 수록된 논쟁적 주제의 책에 대하여 서지레코드에서 직접 연결되는 외부 정보원의 서평이 목록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시론(試論)의 성격을 가지며 이용자 서평의 영향력을 추론할 뿐 실제적인 영향 여부를 입증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3. WorldCat의 이용자 참여

여기에서는 아마존에서 2010년 간행도서들 가운데 편집자들이 선정한 ‘Top 100 Editors’ Picks’에서 최상위 10권을 중심으로 WorldCat의 이용자 서평, 태그 및 독서리스트를 사용한 참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표 1>은 열 권의 책을 순위대로 서명, 저자, 출판사 및 발행일을 보여 주고 있다. <표 2>는 이 책들에 관하여 2012년 2월 16일 및 4월 4일 현재 WorldCat 상 각 책의 소장도서관 수, 서지레코드에 연결된 이용자 기고 서평 건수, 이용자가 추가한 태그 및 각 책을 포함한 독서리스트의 건수를 통한 기간 내 변동 추이를 보여준다.

3.1 소장 도서관

<표 1>에 포함된 열 권의 책들을 WorldCat에서 보면 미국 내에서 적어도 천여 개에서 이

<표 1> 아마존의 2010년 ‘Top 100 Editors’ Picks’ 상위 10종

순위	서명
1	The Immortal Life of Henrietta Lacks/ Rebecca Skloot, Crown. (February 2, 2010)
2	Faithful Place: A Novel/ Tana French, Viking Adult, 1st ed. (July 13, 2010)
3	Matterhorn: A Novel of the Vietnam War/ Karl Marlantes, Atlantic Monthly Press, 1st ed. (March 23, 2010)
4	Unbroken: A World War II Story of Survival, Resilience, and Redemption/ Laura Hillenbrand, Random House, 1st ed. (November 16, 2010)
5	The Warmth of Other Suns: The Epic Story of America’s Great Migration/ Isabel Wilkerson, Random House, 1st ed. (September 7, 2010)
6	Freedom: A Novel/ Jonathan Franzen, Farrar, Straus and Giroux, 1st ed. (August 31, 2010)
7	The Girl Who Kicked the Hornet’s Nest (Millennium Trilogy)/ Stieg Larsson, Knopf (May 25, 2010)
8	To the End of the Land/ David Grossman, Knopf, 1st ed. (September 21, 2010)
9	Just Kids [Paperback]/ Patti Smith, Ecco, Reprint ed. (November 2, 2010)
10	The Big Short: Inside the Doomsday Machine [Hardcover]/ Michael Lewis, W. W. Norton & Company, 1st ed. (March 15, 2010)

〈표 2〉 WorldCat의 이용자 참여 현황

순위	소장도서관				서평		태그		리스트	
	2/16	4/4	증가	증가율	2/16	4/4	2/16	4/4	2/16	4/4
1	2,949	3,030	81	2.7%	0	1	5	5	77	81
2	1,337	1,376	39	2.8%	0	0	1	1	11	12
3	1,675	1,714	39	2.3%	0	0	1	1	16	16
4	2,406	2,524	118	4.7%	1	1	9	9	40	43
5	2,128	2,176	48	2.2%	1	1	4	4	23	24
6	2,489	2,531	42	1.7%	0	0	8	8	37	37
7	2,770	2,839	69	2.4%	0	0	2	2	40	42
8	1,091	1,131	40	3.5%	0	0	2	2	8	9
9	1,362	1,403	41	2.9%	0	0	0	0	15	16
10	2,099	2,125	26	1.2%	0	0	6	6	31	31
평균	2,031	2,085	54	2.6%	0.2	0.3	3.8	3.8	29.8	31.1

천여 개 이상의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다. 이 열 권의 책들은 2012년 2월 16일 현재 미국 내에서 평균 2,031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4월 4일 소장상황을 다시 점검하였을 때는 평균 2,085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소장기관 증가율은 2.6% 정도였다.

먼저 소장기관으로만 보았을 때, 2월 16일 현재 가장 많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책은 *The Immortal Life of Henrietta Lacks*로서 모두 2,949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었다. 4월 4일 조사에는 3,030개 도서관이 소장하여 81개 도서관이 증가하였고, 기간 동안 증가율은 2.7%에 달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책은 *The Girl Who Kicked the Hornet's Nest*으로서 2월에는 2,770개 도서관, 4월에는 2,839개 도서관이 소장하여 기간 내 증가율은 2.4%였다.

2월 16일 조사 당시 소장 도서관수가 가장 적었던 책인 *To the End of the Land*로서 모

두 1,091개 도서관이 소장하였고, 4월에는 소장 도서관 수가 40개 늘어 1,131개 도서관이 소장하였고 3.5%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장 높은 소장 도서관 증가율을 보인 것은 *Unbroken: A World War II Story of Survival, Resilience, and Redemption*으로 2월에는 2,406개 도서관, 4월에는 2,524개 도서관으로 118개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4.7%였다.

3.2 이용자 서평

앞 절에서 본 것처럼 WorldCat에 이 책들의 소장 도서관 수가 적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에 대하여 이용자가 기고한 이용자 서평은 거의 없었다. 2월 16일 당시 열권의 책 가운데 이용자가 기고한 서평은 *Unbroken*과 *The Warmth of Other Suns*라는 단 두 권의 책에만 각각 1건씩 있었고, 4월 4일 검토 시에는 *The Immortal Life of Henrietta Lacks*에 서평이 하나 더 추가되

있을 뿐이다. 이 책들이 모두 2010년에 간행되어 대부분의 도서관에 적어도 1년 이상 소장되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목록 이용자가 서평을 올린 것은 이처럼 미미한 수준이었다.

OCLC가 수행한 이전 연구(2009)에서 많은 온라인 목록 이용자들이 이용자 참여 기능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표 1>을 보면 Yang과 Hofmann(2011)이 목록 이용자들이 아마존이나 iTunes 같은 상업적 사이트에 그러는 것처럼 목록에도 기여하려고 할 것인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지적한 점이 타당하게 여겨진다. 이들은 개별 도서관 목록보다는 전 세계 누구든 태그를 붙이거나 서평을 기고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들 수 있는 WorldCat쯤 되어야 “태그 멍치(the mass of tags)” 같은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WorldCat 상 수많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열 권의 책에 단 3건의 서평만 붙어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3.3 이용자 태그

<표 1>의 각 책들에 대하여 이용자 태그도 그리 많이 달려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적어도 이용자 서평보다는 많아, 열권의 책에 각각 평균 3.8개씩의 이용자 태그가 달려있다. 2월 16일과 4월 4일에 아무런 변동은 없었다.

열권의 책 가운데 가장 많은 태그를 가진 것은 *Unbroken*으로 a world war ii story, acer, book, cheap, duc--history, greast book, love, price, book thief라는 9개의 태그, 그 다음으로 *Freedom: A Novel*은 201103, duc--social issues, freedom, general collection, general

fiction, oprah, own, rainy day books라는 8개의 태그를 각각 갖고 있다. *The Big Short*는 6개, *The Immortal Life of Henrietta Lacks*는 5개, *The Warmth of Other Suns*는 4개의 태그들이 각각 달려있다. 나머지 4권의 책들은 각각 2권씩 2개와 1개의 태그가 달려있고, *Just Kids*라는 책은 태그가 하나도 달려있지 않다.

이 열 권의 책들에 달려 있는 태그의 수 자체가 그리 많지 않고, 한 권의 책에 대하여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태그를 추가할 수도 있으므로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태그 기능을 이용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서평이나 태그의 수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유의미한 관계를 추론하기는 어려우나, 내용을 문장으로 구성하고 서술하는 이용자 서평보다는 한 두 단어로 표현되는 태그 추가가 훨씬 용이한 만큼 현재로는 태그를 통한 이용자 참여가 다소 많다고 할 수 있다.

3.4 이용자 독서 리스트

<표 1>을 보면 이용자 독서 리스트를 통한 참여는 서평이나 태그보다 훨씬 더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열권의 책이 2월 16일 당시 각각 평균 29.8개, 즉 대략 30개 정도의 독서 리스트에 수록되어 있었고, 4월 4일에는 평균 31.1개의 독서 리스트에 수록되었다.

2월 16일 현재 가장 많은 독서 리스트에 수록된 책은 *The Immortal Life of Henrietta Lacks*로서 모두 77개의 독서 리스트에 포함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Unbroken*과 *The Girl Who Kicked the Hornet's Nest*가 각각 40개의 독서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Freedom: A*

Novel이 37개, *The Big Short*가 31개, *The Warmth of Other Suns*가 23개의 독서 리스트에 각각 포함되었으며, 나머지 책들은 스무개 미만의 독서 리스트에 수록되었다.

4월 4일 검토 시 각 책을 수록한 독서 리스트의 수는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Matterhorn: A Novel of the Vietnam War*과 *Freedom: A Novel* 두 책은 각각 16개와 37개의 독서 리스트 수가 변하지 않았다.

이용자 독서 리스트는 이용자가 스스로 만든 독서 리스트를 목록에 공개한다는 점에서 이용자 참여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소극적인 참여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독서 리스트는 서평이나 태그와 같이 다소라도 책의 내용과 관련된 지적인 활동의 결과물이기보다는 개인의 관심이나 독서 이력에 따라 서지레코드만 연결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서관과 같은 기관 혹은 사서와 같은 기고자가 독서 리스트를 올려놓았을 경우에는 다른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 즉 도서관이나 사서가 올려놓은 독서 리스트는 단순한 개인의 독서 이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과과목이나 신간 안내 등과 관련된 “추천” 독서 리스트로서 어느 정도 책에 대한 평가과정이 개입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표 2>에서 2월 16일 현재 가장 많은 77건의 독서 리스트에 제목이 올라있던 *The Immortal Life of Henrietta Lacks*의 경우는 한 달여가 지난 3월 26일에 독서 리스트는 80건으로 증가하였고, 4월 4일에는 81건이 되었다.

*The Immortal Life of Henrietta Lacks*와 연결된 독서 리스트 가운데 상당수는 기관 기고자

가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3월 20에 갱신된 “ALA Notable Non-Fiction for Adults”라는 제목의 리스트에는 모두 152종의 책이 포함되어 있다. clacklib라는 아이디의 기고자 프로필을 보면 주소는 “Librarian Clackamas CC, Oregon City, Oregon, United States”이고, 이메일은 “reference@clackamass.edu”이다. 말하자면 이 독서 리스트는 미국 오리건주 오리건 시티의 클래카마스 커뮤니티 컬리지(Clackamas CC) 도서관의 참고사서가 올려놓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WorldCat에는 이 아이디의 기고자와 연결된 리스트가 모두 12개 올라와 있고, 이들은 “CCC RD 090 Fiction-Baker”, “CCC ANT 103 Keeler(Ethnographies recommended for Cultural Anthropology)”처럼 교과과목과 관련된 리스트들이다.

*The Immortal Life of Henrietta Lacks*와 더불어 33권의 책을 포함하고 있는 독서 리스트인 “Leisure Reading--Schusterman Library”는 기고자 jcyanzen의 프로필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리스트의 설명(description)에 따르면 오클라호마대학-털사 캠퍼스(OU-Tulsa)의 도서관에서 “Leisure Reading area”에 배치한 신간 책들의 리스트임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New Books at the Park Library”, “November 2010-New Books @HPULibraries” 등과 같이 제목만 보아도 도서관에 관련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리스트들이 다수 있다. “New Book List”는 모두 496권의 책을 수록하고 있고, “UC Berkeley Fong Optometry and Health Science Library가 입수한 신간 책 리스트”라는 설명도 있어 대학도서관에서 기고한 리스트임을 바로 알 수 있다.

물론 개인 기고자들도 있다. amyvecchione라는 기고자가 올린 “Finalists for Boise State Campus Read”라는 리스트는 10권의 책을 포함하고 있는데, 프로파일에 따르면 기고자는 Amy Veccioner라는 개인으로 추정되며 모두 14개의 리스트를 WorldCat에 올려놓고 있다. 또한 31종의 책을 포함하고 있는 “Books I have Read Recently” 리스트는 rwillits라는 기고자가 프로파일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신원을 알기는 어려우나 리스트의 제목으로 보아 개인적 독서 리스트일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Books I have Read”라는 다른 리스트는 bowlib라는 기고자가 올린 것으로 단 2권의 책만 포함하고 있다. 프로파일에 따르면 기고자는 Sarah Snavelly (Bowman, North Dakota, United States)라는 개인으로 추정되며, WorldCat에는 이 리스트 하나만 올려놓고 있다.

한편으로는 독서 리스트의 신뢰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기고자도 있다. 예를 들어 MCHayes라는 기고자는 2011년 9월 29일과 30일 사이에 “ann”, “kjahfs”, “Wayne’s test”라는 세 개의 리스트를 올렸다. “ann”은 2종, “kjahfs”은 2종, “Wayne’s test”는 3종의 책들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 리스트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책이 바로 *The Immortal Life of Henrietta Lacks*이다. 이 기고자는 프로파일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WorldCat에 모두 9개의 리스트를 올리고 있다.

WorldCat에서는 이 독서 리스트들의 “viewer” 수를 공개하고 있다. 이 책과 관련된 80건의 독서 리스트 가운데 2010년 2월 3일 최초로 올려진 “Things I Recommend”라는 제목의 리스트는 WorldCat 이용자가 124회 본 것으로 계수

되어 있으며, 2012년 3월 20일에 올려진 최신 리스트인 “Spring 2012 Library Associate Book Suggestions”는 WorldCat 이용자가 3월 26일 현재까지 30회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Finalists for Boise State Campus Read”는 274회 본 것으로 계수되어 있다.

여기에서 80건의 독서 리스트 전체의 “viewer” 수를 살펴보는 것은 않았으나, 분명 WorldCat의 목록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가 올려놓은 독서 리스트를 참조하는 것은 사실임을 알 수 있다.

4. 외부정보원의 이용자 서평

4.1 이용자 서평 현황과 증가율

〈표 3〉은 〈표 1〉에 명시한 10권의 책에 대한 외부 정보원의 이용자 서평 현황으로서, WorldCat에 수록된 각 책의 서지레코드에 연결된 외부 서평 정보원인 굿리즈와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의 책 정보에 연결된 서평의 건수를 보여준다. 〈표 3〉 역시 2월 16일과 4월 4일에 두 차례 조사한 서평 건수 및 기간 내 증가율을 포함하고 있다.

차세대 도서관 목록에서 주목할 만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곧바로 온라인 서점이나 서평 사이트와 같은 외부정보원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WorldCat의 서지레코드에서 연결되는 ‘GoodReads Reviews’는 전 세계 일반 독자들이 서평과 추천을 올리는 웹사이트인 굿리즈(GoodReads.com)의 서평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것으로, 사실은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고유한 기능이라기보다는 브리딩이 일찍이

〈표 3〉 굿리즈와 아마존의 이용자 서평 현황

순위	굿리즈				아마존			
	2월 16일	4월 4일	증가	증가율	2월 16일	4월 4일	증가	증가율
1	9,226	9,924	698	7.6%	991	1,035	44	4.4%
2	1,896	1,974	78	4.1%	234	240	6	2.6%
3	150	153	3	2.0%	593	610	17	2.9%
4	9,414	10,475	1,061	11.3%	2,118	2,289	171	8.1%
5	890	985	95	10.7%	314	328	14	4.5%
6	7,223	7,449	226	3.1%	1,017	1,038	21	2.1%
7	10,801	11,442	641	5.9%	1,391	1,486	95	6.8%
8	258	285	27	10.5%	88	91	3	3.4%
9	2,765	2,921	156	5.6%	292	302	10	3.4%
10	2,007	2,093	86	4.3%	731	745	14	1.9%
평균	4,463	4,770	307	6.5%	776	816	40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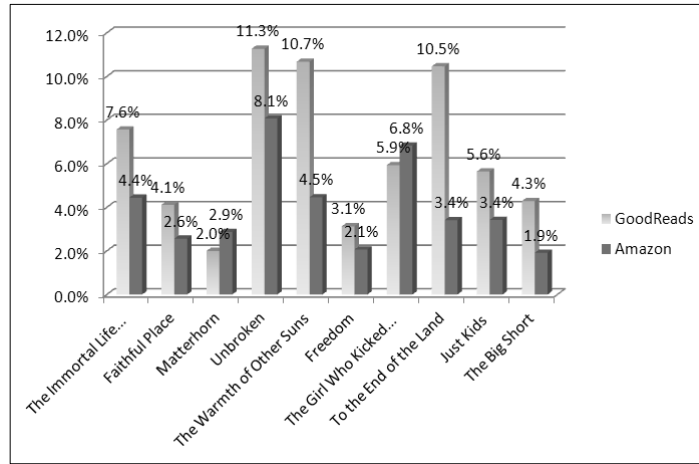
목록의 '확장된 콘텐츠(Enhanced contents)'라고 언급한 것(Breeding 2004)에 해당한다. 2007년 1월에 출범한 굿리즈는 2012년 2월 현재 7,100,000여 회원이 기고한 250,000,000여 건의 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¹⁾ 다만 이 사이트의 서평 기고자가 대부분 일반인들이므로 *Publishers Weekly*, *New York Times*, *School Library Journal* 등이 제공하는 전문가 서평과는 구별된다.

또한 WorldCat은 "Buy it"으로 아마존, 반스앤노블, Better World Books 및 구글 eBooks으로 직접 링크를 제공한다. WorldCat의 목록 이용자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서지레코드로부터 이러한 외부 사이트로 찾아가는지는 바로 알 수는 없으나, 이러한 링크는 목록이 더 이상 도서관이라는 제한된 경계 안에 있지 않으며, 상업적 정보원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입증한다.

〈표 3〉에 보는 바와 같이 열권의 책에 대하여 굿리즈와 아마존에 이용자가 기고한 서평 수는 수백에서 수천 건에 이른다. 이 연구가 진행되는 2012년 2월 16일부터 4월 4일 사이 서평 증가율은 각각 307건, 6.5%와 40건, 4.0%이다. 〈그림 1〉은 기간 내 각 책에 대한 이용자 서평 증가율을 보여준다.

2012년 2월 16일 당시 굿리즈에는 〈표 1〉의 열권의 책 각각에 평균 4,463건의 서평이, 4월 4일에는 평균 4,770건의 서평이 각각 달려 있으며 기간 내 평균 307건, 6.5%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2월 16일 열권의 책 가운데 굿리즈 서평이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책은 '밀리넨엄 3부작' 세 번째 책인 *The Girl Who Kicked the Hornet's Nest*로 무려 10,801건의 서평이 달려 있었고, 4월 4일에는 모두 11,441건이 달려 있어 기간 내 641건, 5.9%의 증가율을 보여 주었다.

1) Goodreads.com 홈페이지. "About Goodreads." [online]. [cited 2012.2.17]. <<http://www.goodreads.com/about/us>>.



〈그림 1〉 굿리즈와 아마존의 이용자 서평 증가율

열 권 가운데 굿리즈 서평이 가장 적은 책은 *Matterhorn: A Novel of the Vietnam War*로서 2월 16일에 150건, 4월 4일에 153건의 서평이 올라와 있을 뿐이다. 이 책의 서평은 기간 내 단 3건만이 증가하여 증가율 또한 2.0%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WorldCat에는 이용자 서평이 한 건 올라와 있다. *To the End of the Land*는 258건의 서평이 달려 있었으나 285건으로 늘어나 27건, 10.5%의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한편 아마존에서 보면 〈표 1〉의 책 각각에 대하여 2월 16일에는 평균 776건의 이용자 서평이 달려있었고, 4월 6일에는 816건으로 40건이 늘어나 평균 4.0%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열 권 가운데 2월 16일에 가장 많은 서평이 달려있었던 책은 2010년 11월에 출간된 *Unbroken: A World War II Story of Survival, Resilience, and Redemption*으로 모두 2,118건의 서평이 있었다. 4월 4일 서평의 건수는 2,189건으로 모두 171건이 늘어나 가장 높은 8.1%의 증가율

을 보여주었다. 열권의 책들 가운데 서평의 수가 가장 적었던 것은 *To the End of the Land*의 88건이었고, 4월 4일에는 3건이 늘어난 91건의 서평이 달려있어 평균치보다 낮은 3.4%의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각 책에 대한 평균 서평 건수는 2월 16일을 기준으로 굿리즈가 아마존보다 5.7배 가량 많았고, 4월 4일에 비교한 결과로는 기간 내 증가율 또한 1.6배 가량 높았다. 이러한 사실에서 일반 이용자들이 아마존과 같은 상업적 서점 사이트보다는 굿리즈와 같은 서평 전문 사이트에 서평을 “더 많이” 기고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처럼 책마다 수백에서 수천 건의 서평을 달고 있는 사이트에 비하여 WorldCat과 같은 목록에 이용자 서평을 기고하는 사람들의 수는 아직은 미미하며, 그런 만큼 목록이 직접적인 이용자 서평의 정보원이 된다고 하기에는 이르다는 점이다.

WorldCat의 이용자가 각 책의 서지레코드에 연결된 굿리즈나 아마존의 서평을 얼마나 보고

참조하는지는 직접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용자가 서평 정보를 원한다면 도서관의 경계를 넘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외부정보원이 지근 거리에 있다는 것은 이들의 서평이 도서관 목록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4.2 이용자 서평의 사례

차세대 도서관 목록에 연결된 외부정보원의 이용자 서평이 어떻게 목록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아마존에서 발생한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이용자 서평 기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서평이 직접 연결되는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지난 2011년 11월 1일 미국에서만 발매되기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의 영문자서전 *The Uncharted Path*의 사례를 보면, 2012년 4월 3일 현재 아마존에는 이 책의 서평이 모두 410건 올라와 있으며 평균 3개의 별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187건(45.6%)의 서평은 한 개의 별을 주고 있지만, 거의 비슷한 수인 185건(45.1%)은 5개의 별을 주고 있으며, 31건(7.6%)의 서평이 4개, 5건(1.2%)이 3개, 2건(0.5%)이 2개의 별을 각각 주고 있다.

이보다 앞서 이 책에 대해서 2011년 11월 13일 아마존의 이용자 서평이 혹평 일색이라는 『한겨레신문』의 보도(임종업 2011)가 있었고, 또한 이러한 보도 이후 호의적인 이용자 서평이 갑작스럽게 대거 등장함을 지적한 2012년 1월 25일 인터넷 신문인 『OhmyNews』의 보도가

있었다. 『OhmyNews』는 이 책이 발간된 2011년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체 142명의 이용자 중 별 4-5개를 준 이용자는 28명에 불과했으나, 『한겨레신문』의 보도 이후 12월 31일까지 전체 197명의 이용자 중 별 4-5개를 준 이용자가 159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하며 ‘서평 알바’의 의혹을 제기하였다(최경준, 설갑수 2012).

2012년 4월 현재 이 서평들을 날짜별로 정렬한 결과를 보면 『OhmyNews』의 보도 이후에 마지막으로 서평이 올라온 것은 3월 11일이다. 이에 앞서 이 기사에서도 언급된 12월 31일을 기점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1월 24일 사이에는 모두 65건의 서평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26건은 별 다섯 개, 32건은 별 한 개를 주었고, 5건이 4개의 별, 2건이 3개의 별을 주었다. 특히 1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올라온 13건의 서평 가운데 별 한개씩을 부여한 2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1건은 모두 별 5개의 평점을 주고 있다.

이 책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현재 이용자들이 “가장 유용한 호의적 서평”이라고 평가한 서평이 책에 대하여 별 다섯 개의 평점을 주고 있지만, 실제 내용 상으로는 매우 호의적이지 아니라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유용하다고 평가된 “호의적 서평”은 “Bible of Lies, Deceits, Swindles and Shameless Propaganda”라는 제목을 갖고 있으며, 역시 이 책을 별 다섯 개로 평점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제목의 서평을 호의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내용이 호의적이거나 비판적임을 판단하지 않고 “유용성(Most helpful first)” 순으로 정렬한 결과는 상위 30건 모두 별 한 개를 준 “비판적” 서평들이다.

이 책은 WorldCat에서 검색하면 2012년 2

월 6일 현재 미국 내 79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두 개의 서지레코드 가운데 하나(OCLC Number: 760085112)는 5개 도서관, 다른 하나(OCLC Number: 703211173)는 74개 도서관의 소장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두 개의 서지레코드 모두 이용자 서평이나 태그가 올려져 있지 않다. 아마존에서의 열기에 비하면 목록에서 서평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이용자들의 관심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WorldCat Local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구축된 University of California 도서관 시스템의 종합목록인 Melvyl을 보면 2012년 2월 7일 현재 10개의 UC 캠퍼스 도서관 가운데 버클리(Berkeley) 캠퍼스만이 이 책을 입수하였고, 현재는 '정리 중(In Process)'이다. 따라서 아직 대출이 가능하진 않았고, 그런 만큼 이용자 태그나 서평 등이 추가되어 있지 않았다.

WorldCat에서 직접 가든, 혹은 WorldCat Local에 기반한 개별 도서관 목록을 통해서든 서지레코드에서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서점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아마존의 서평 공간에서 격렬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반스앤노블 온라인서점에는 2012년 2월 5일 현재 이 책의 서평이 단 일곱 건 올라와 있었다. 이 일곱 건의 서평 가운데 네 건은 별 한 개를, 세 건은 별 다섯 개를 각각 부여함으로써 이 책의 평균 등급은 두 개 반으로 평가되어 있었다. 이 서평들은 앞서 『한겨레신문』의 기사가 지적한 것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최초로 이 책의 서평이 올라온 것은 2011년 10월 24일로 이 책의 공식 발행일인 2011년 11월 1일보

다 앞서고 있다. 이 최초의 서평은 익명의 독자가 쓴 것으로 별 한 개의 평점과 “this story is a pure fabrication. better not get it”이라는 단 한 줄의 평가를 덧붙이고 있다. 이후 한 삼주 정도는 아무런 서평이 추가되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는 갑자기 11월 13일에 5건, 17일에 1건의 서평이 올라왔으며, 그 이후로는 다시 전혀 서평이 추가되지 않았다. 이 책에 별 다섯 개의 평점을 준 세 건의 서평은 13일에 올라온 2건과 17일에 올라온 1건으로 모두 한 줄의 서평만 포함하고 있다.

WorldCat에 연결된 또 다른 온라인 서점인 Better World Books에는 2월 16일 현재 이 책에 관한 서평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았다. 더욱이 이 책 자체의 소개에는 “Written by the CEO of Korean car company Hyundai…”라고 하여 저자가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 현대의 CEO라고 되어 있다.²⁾ 특히 이 사이트에서는 서평을 올리기를 위하여 굿리즈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연구가 진행되는 시점에는 아무도 서평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이 책과 관련하여 아마존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용자 서평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첫째, 이용자가 주는 서평과 평점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통상 평점인 별의 수가 많으면 “좋다”라고 인식하게 마련인데, 상당수의 서평들은 이 책에 대해 평점은 높게 주면서 서평의 내용은 “좋지 않다”에 무게를 싣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이 처음

2) BetterWorldBooks. The Uncharted Path. [cited 2012.2.6].
 <<http://www.betterworldbooks.com/the-uncharted-path-id-1402262914.aspx>>.

부터 평점과 서평의 불일치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서평에 의존한 판단에 혼란을 느낄 수도 있다.

둘째, 이용자들이 반드시 책을 읽지 않고도 서평란에 글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한겨레신문』이 이 책의 서평란에 43개의 “댓글”이 달려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도 이들의 내용은 책을 읽고 기고한 “서평”이라기보다는 일반적 신문기사에 달리는 “댓글” 정도였다. 서평의 공간이 마치 특정한 인물에 대한 정치적 혹은 사회적 공론장이 된 듯 하였다. 다시 말하면 실제 책 자체의 순수한 가치에 대한 서평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 자체에 대한 호불호로 비롯된 의견 표출의 공론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용자 서평을 허용하는 공간에서 이러한 일이 다른 책과 관련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이용자가 서평으로 책을 평가하지만 다른 이용자는 그 서평 자체가 유용한가를 다시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이 책의 경우에는 많은 이용자들이 객관적 서평으로서 “유용함(helpful)”이 아니라 저자나 책에 대해 “동조할 만한 의견”으로서의 “유용함”을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였다. 이용자 서평이 비록 전문 서평의 조건이나 수준을 갖추지 못한다고 해도, “동료” 독자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더 쓸모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서평의 “유용함”에 대한 평가는 서평을 기고하는 이용자들을 고무하거나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의 사례처럼 “유용함”의 평가가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 기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5. 맺음말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개념이 등장하고 새로운 기능의 하나로서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 참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용자가 서평, 태그, 평점, 독서 리스트 등으로 목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 특히 WorldCat과 같이 전 세계 도서관들의 방대한 서지레코드를 수록하고 있는 종합목록은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참여 공간을 열어두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이용자 참여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이 연구에서 2010년 간행된 열 권의 책을 중심으로 WorldCat 상 이용자가 추가한 서평, 태그와 독서 리스트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세 가지 이용자 참여 기능 중 독서 리스트가 그래도 많이 사용되었고, 태그와 서평은 거의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리스트는 일반 목록이용자의 독서 리스트뿐만 아니라 대학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추천도서 리스트, 신간도서 리스트 등도 포함되어 있어, 개인 및 기관 차원의 참여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같은 책들에 대하여 WorldCat의 “Buy It” 기능을 통해서 연결되는 아마존의 이용자 서평 및 외부 서평 사이트인 굿리즈의 서평도 살펴본 결과, 각 책마다 적게는 수백 건에서 많게는 수천 건의 이용자 서평이 달려있었다. 이러한 사이트에서의 이용자 서평 활동이 매우 활발한데 비하여, WorldCat의 이용자 서평 참여는 아직 미진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WorldCat이 전 세계 수많은 도서관을 회원으로 갖고 있으며 매우 빈번하게 이용되지

만, 아직은 자발적인 이용자 서평의 참여 공간으로서 잘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온라인 목록의 등장 이래 수십 년 동안 이용자들에게는 조금도 개방되지 않았던 목록의 공간에 차세대 도서관 목록 혹은 발견 인터페이스의 도입과 함께 이용자들의 참여를 허용하였다 해도 아직은 인식의 전환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둘째, WorldCat은 웹 상에서 일반 이용자로 하여금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평, 태그 등을 기고할 수 있게 허용하지만, 특별히 개인이 이용자 서평을 기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과 같이 상업적인 웹사이트에서는 서평을 기고하면 전자상거래에서 상품평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크레딧을 줄 수도 있다. 또한 굿리지는 아예 처음부터 서평 공유와 토론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므로 자발적 참여의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WorldCat과 같은 목록은 아직은 이용자의 직접 참여 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물론 이 연구에서 단지 열 권의 책을 살펴본 것으로 WorldCat에 이용자 참여가 “전적으로” 저조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실제로 WorldCat 상 조앤 롤링의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 책들에는 여기서 살펴본 책들보다 많은 이용자 서평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이용자 참여 기능 가운데 간단한 단어로 참여할 수 있는 태그나 서지를 포함시키기만 하

면 되는 독서 리스트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이용자 서평과 같이 이용자의 지적 노력이 많이 투입되는 참여의 증대 추이는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도서관 목록에서 이용자 서평 참여가 아직 미미한 만큼, 서지레코드에서 직접 연결되는 아마존이나 굿리즈 등 외부 정보원이 제공하는 이용자 서평이 상대적으로 이용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여기에서 *The Uncharted Path*라는 책과 관련하여 아마존의 이용자 서평 공간에서 발생한 논쟁의 사례를 통해 이용자 참여가 왜곡되는 경우도 발생함을 볼 수 있었다. 이 책은 이용자 서평 공간이 정치적 공론장이 됨으로써 예외적 사례일 수도 있으나, 다른 책과 관련해서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용자 참여가 허용되는 목록의 서평 공간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논하였다. 실제로 차세대 도서관 목록에서 이용자 서평을 통한 참여 기능이 얼마나 이용되며, 거기 연결된 외부 정보원의 이용자 서평이 목록 이용자들의 자료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이용자 서평의 기능이 확산되고 안정된 이후 실제 이용자에 대한 영향 여부를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아직은 대부분 도서관들에서 목록의 이용자 서평 기능을 도입하는 초기 단계이지만 아마존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이용자 서평 공간의 왜곡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구중익, 박승진. 2007. 차세대 OPAC의 인터페이스와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2): 61-88.
- [2] 김상호. 1994. 문헌비평을 위한 서평의 분석적 고찰: 서평문화와 출판저널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7(1): 247-262.
- [3] 노동조, 민숙희. 2011. 대학도서관 웹사이트 분석을 통한 도서관 2.0 기반 서비스 운영실태 분석. 『정보관리연구』, 42(4): 195-223.
- [4] 심 경. 2008a. 차세대 도서관 목록. 『도서관문화』, 49(9): 22-28.
- [5] 심 경. 2008b.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사례: AquaBrowser. 『도서관문화』, 49(10): 48-56.
- [6] 심 경. 2008c.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사례 (2): WorldCat Local. 『도서관문화』, 49(11): 54-61.
- [7] 윤정옥. 2012. 도서관 목록의 지식 확산 도구 역할에 관한 시론: WorldCat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123-141.
- [8] 윤정옥. 2010. 차세대 도서관 목록 사례의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1): 1-28.
- [9] 이지연, 민지연. 2008. 라이브러리 2.0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요구사항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213-231.
- [10] 이현실. 2009. OPAC 접근 향상을 위한 도서관 툴바의 제공 및 사서 평가 연구 - W대학 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157-180.
- [11] 이현실, 배창섭, 이은주, 한성국. 2009. 지식 서비스 지향 도서관 시스템의 논리 모델. 『정보관리학회지』, 26(3): 45-67.
- [12] 임종엽. 2011. MB 영문 자서전 아마존서 찬바람. 『한겨레신문』, 11월 13일.
- [13] 최경준, 설갑수. 2012. 이대통령 영문 자서전, 미국서 1014권 팔려, 홍보비만 1억 이상... 스티브 잡스가 통곡할 일. 『OhmyNews』, 1월 25일. [online]. [cited 2012.2.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88922>.
- [14] Arko, R. A., Ginger, K. M., Kastens, K. A., & Weatherly, J. 2006. "Using annotations to add value to a digital library for education." *D-Lib Magazine*, 2(3). [online]. [cited 2012.2.6].
<www.dlib.org/may06/arko/05arko.html>.
- [15] Breeding, Marshall. 2010. "State of the art in Library Discovery 2010." *Computers in Libraries*, 31(1): 31-35.
- [16] Breeding, Marshall. 2007a. "Next-Generation Catalogs." *Library Technology Reports*, 43(4): 1-44.
- [17] Breeding, Marshall. 2007b. "Small world: OCLC launches WorldCat Local." *Small Libraries*

- Newsletter*, 27(6): 3.
- [18] Breeding, Marshall. 2004. "Integrated library software: A guide to multiuser, multifunction systems." *Library Technology Reports*, 40(1): 1-44.
- [19] OCLC. *Online Catalogs: What Users and Librarians Want: An OCLC Report*. 2009. [online]. [cited 2009.12.10]. <<http://www.oclc.org/reports/onlinecatalogs/fullreport.pdf>>.
- [20] OCLC. 홈페이지. "WorldCat Facts and Statistics."
 <<http://www.oclc.org/us/en/worldcat/statistics/default.htm>> : "WorldCat: A Global Catalog."
 <<http://www.oclc.org/us/en/worldcat/catalog/default.htm>> : "Brief history of OCLC Activities with National Libraries Outside the U.S."
 <<http://www.oclc.org/us/en/worldcat/catalog/national/timeline/default.htm>>.
 [online]. [cited 2011.12.3].
- [21] Sierra, Tito, Ryan, Joseph, & Wust, Markus. 2007. "Beyond OPAC 2.0: Library Catalog as versatile discovery platform." *Code4Lib Journal*, 1. [online]. [cited 2009.12.31]. <<http://journal.code4lib.org/articles/24>>.
- [22] Yang, Sharon Q., & Hofmann, Melissa A. 2011. "Next generation or current generation?: A study of the OPACs of 260 academic libraries in the USA and Canada." *Library Hi Tech*, 29(2): 266-300.
- [23] Yang, Sharon Q., & Hofmann, Melissa A. 2010. "Evaluating and comparing discovery tools: How close are we towards next generation catalog?" *Library Hi Tech*, 28(4): 690-709.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Gu, Jung-Eok & Kwak, Seung-Jin. 2007. "A study on Next Generation OPAC's interface and func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8(2): 61-88.
- [2] Kim, Sang-Ho. 1994. "A study on the book reviews published in review periodical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7(1): 247-262.
- [3] Noh, Dong-Jo & Min, Sook-Hee. 2011. "A study on the state of the service-based Library 2.0 through web site analysis of Korea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2(4): 195-223.
- [4] Shim, Kyung. 2008a. "Next Generation Catalogs." *KLA Journal*, 49(9): 22-28.
- [5] Shim, Kyung. 2008b. "A case study of Next Generation Catalogs: AquaBrowser." *KLA Journal*,

- 49(10): 48-56.
- [6] Shim, Kyung. 2008c. "A case study of Next Generation Catalogs(2): WorldCat Local." *KLA Journal*, 49(11): 54-61.
- [7] Yoon, Cheong-Ok. 2012. "A discourse on the role of library catalogs as a tool for knowledge distribu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123-141.
- [8] Yoon, Cheong-Ok. 2010. "A case study on the Next Generation Library Catalog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1): 1-28.
- [9] Lee, Jee-Yeon & Min, Ji-Yeon. 2008. "Empirical research to understand the user perception and requirement of Library 2.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1): 213-231.
- [10] Lee, Hyun-Sil. 2009. "A case study on the Next Generation Library Catalog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157-180.
- [11] Lee, Hyun-Sil, Bae, Chang-Sub, Lee, Eun-Joo, & Han, Sung-Kook. 2009. "A logical model of library system towards knowledge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3): 45-67.
- [12] Im, Jong-Eob. 2011. "Cold wind over MB's English autobiography." *The Hankyoreh*, November 13th.
- [13] Choi, Kyung-Joon & Seol, Kap-Soo. 2012. "President Lee's English autobiography, Sold only 1014 copies in the U.S...." *OhmyNews*, January 25th.